“백제는 개방성·다양성·국제성 보유한 나라”

광주일보·호남문화재연구원 문화강좌

노중국 계명대 명예 교수 강의
유교·불교 등 동북아공유문화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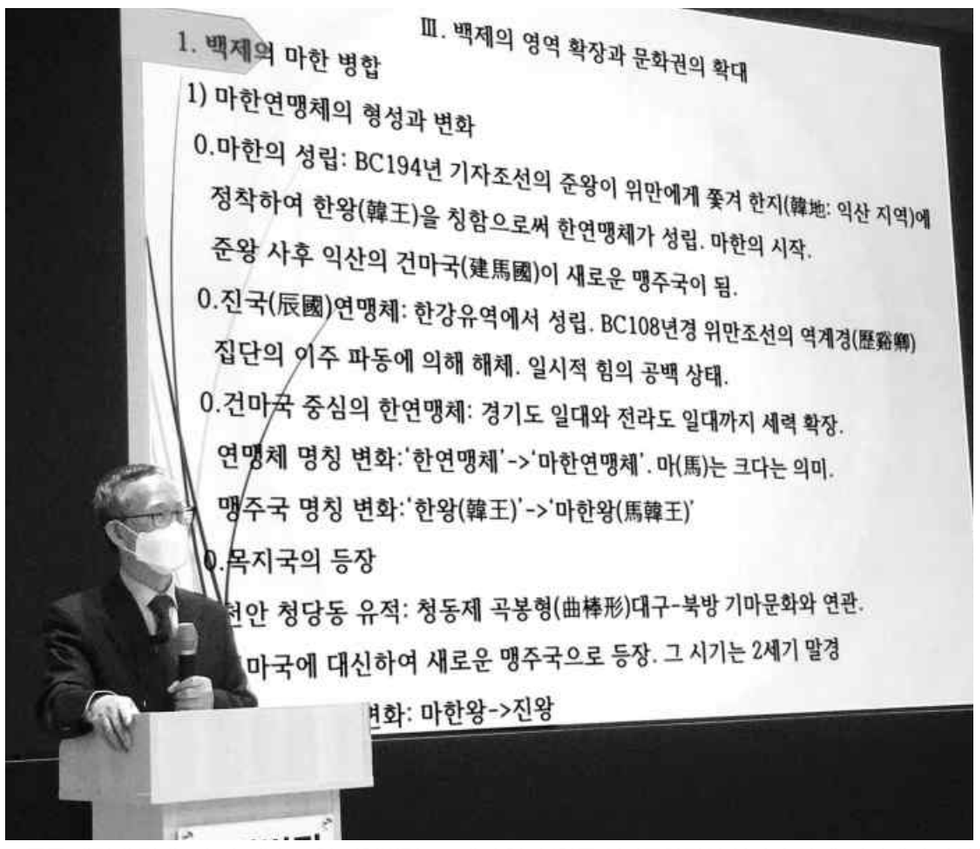
“백제는 강과 바다를 통해 활발하게 대외교섭과 교류를 지속한 해양적인 국제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백제의 국호 ‘백가제해’(百家濟海, 100가가 바다를 건너오다)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광주일보사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신흥남)과 공동개최한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백제역사문화권 문화강좌에서 백제문화의 성격을 이같이 압축했다.

노 교수는 “백제의 국제성은 다변화 외교로 구현됐으며, 근초고왕이 369년 이전에 중국 지역의 동진(東晋), 전진(前秦)과 교섭한 이래 백제외교의 기본방향이 됐다”고 소개했다. 백제는 송·제·양·진(宋·齊·梁·陳) 등 중국 남조(南朝) 왕조들과도 교섭했다. 무령왕릉은 전축분(塼築墳, 벽돌무덤)으로, 양(梁)나라의 묘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백제가 동남아시아 제국, 인도와도 교류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는 사료도 있다.

노 교수는 “백제는 4세기 이후 중국 왕조를 대상으로한 교섭과 교류를 바탕으로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를 주변국에 전파했다”면서 “이를 통해 백제는 고대 동북아시아공유문화권의 산파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가 정의한 동북아시아공유문화는 한문자 사용, 유교, 도가사상, 불교 등 정신문화를 축으로 한 문화를 말한다. 그 중심에 백제가 있다. 신라와 왜(倭)는 백제를 매개로 유학사상을 수용했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채택했다.

노 교수는 “백제가 이런 역할을 하게된 데는 개방성, 다양성, 국제성을 보유한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외국계 관료를 등용한 것이 개방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수서(隋書, 수나라 역사서) ‘백제전’에는 ‘백제에 신라계, 고구려계, 왜계 관료와 중국계 관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중국계 관료를 등용함으로써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왜계 관료를 통해 백제의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해준 것이다.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강좌에서 강연하고 있다.

백제 문화의 다양성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잘 드러나 있다. 노 교수는 “백제는 부여·고구려계인 온조(溫祚) 집단이 세웠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는 부여·고구려계 문화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마한(馬韓)의 여러 나라들을 병합하면서 백제 문화가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또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해 중국 문화와 낙랑·대방군 문화를 흡수한 고구려 문화도 포괄했다.

이 강좌는 지난해말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馬韓) 역사문화권에 광주권역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광주일보사와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지역민들의 지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넓히고 타 문화권과 비교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는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오는 22일 이성주 경북대 교수의(신라역사문화권) 강의에 이어 이영식 인재대 명예교수,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문안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장, 차용걸 충북대 명예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 등이 차례로 강단에 선다. 지난 강좌는 유튜브(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호남문화재연구원 기획사업실(전형민 061-383-3640).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부대, 지역아동센터에 유아·아동 침대 기증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단장 최강님)은 최근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후원물품 전달식을 갖고 전달받은 유아 및 어린이 침대 35대(300만원 상당)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제공〉

콘진원, 전주국제영화제 ‘VR영화 지원’ 업무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사진 왼쪽)과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는 ‘실감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VR(가상현실) 영화 지원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양 기관은 VR 영화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VR 영화 프로젝트 발굴 및 평가, 선정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지원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VR 영화는 실감 기술과 접목돼 영화 관람 체험을 가능하게 해 미래 영화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사업이 영화와 실감콘텐츠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확장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와의 협력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영화 분야와 실감 기술이 만나 확장된 미적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크레이지 러브(재)	15 헬로키즈 과학교실 45 쥬라기캅스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22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충청도 스타일, 소리를 잇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고양이 목에 마이크달GO(재) 55 UHD 숨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또봇V 시즌2(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로컬식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마이 로컬 텔레비전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사랑의 꽈배기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크레이지 러브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40 로컬식탁	0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어게인 마이 라이프(재)
12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튜디오 K(재)	00 스포츠 매거진 40 포비든앨리 시즌2(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뽀롱뽀롱 뽀로로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07:30 엄마 까투리
07:45 띠띠뽀 띠띠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출동! 슈퍼윙스
08:50 슈퍼두퍼 잉글리시
09:0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09:20 꼬마버스 타요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5:50 EBS 다큐프라임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05 클래스 e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15:40 지식채널e
15:50 직업탐구 별일입니다2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7:45 출동! 슈퍼윙스(재)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9:00 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8일(음 3월 18일 辛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48년생 하나부터 열 까지 모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60년생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72년생 당장 처리해야만 할 시급한 일이 보인다. 84년생 원인 요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장을 받게 된다. 96년생 겉만 보고 평가하면 실수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7, 95

丑 37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49년생 머지않아서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 61년생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본다. 73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85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97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00, 70

寅 38년생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포기하라. 50년생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62년생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74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 86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98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61

卯 39년생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51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3년생 반드시 이행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75년생 목적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87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99년생 지금 놓친다면 곤란한 지경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36, 91

辰 40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크게 후회하리라. 52년생 고통이 따를 것이니 단단히 각오 해야겠다. 64년생 겹치다 보면 중차대한 것을 망각할 수 있다. 76년생 정성껏 가꾼다면 알찬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을 맞게 된다. 88년생 반복되면서 쉴 틈을 주지 않는다. 00년생 풀리게 되어 있으니 마음놓아라. 행운의 숫자 : 07, 87

巳 41년생 답답하겠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다. 53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방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65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77년생 방심하고 다닌다면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다. 89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01년생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32, 52

午 42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54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66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니라. 78년생 너무 오래되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90년생 일상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02년생 듣던 바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리라. 행운의 숫자 : 28, 74

未 43년생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 55년생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 나아가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67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목하고 있어야겠다. 79년생 실제로 접하면서 사실상의 가닥이 잡힐 것이다. 91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겠다. 03년생 상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1, 94

申 44년생 빈 곳을 메우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해두는 게 맞다. 68년생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이리라. 80년생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92년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호전 되어가고 있다. 04년생 전면적으로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9, 79

酉 33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45년생 과대 평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볼 일이다. 57년생 현상 유지야말로 상책임을 알고 진중해야 한다. 69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81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93년생 볼수록 가관이로다. 행운의 숫자 : 21, 67

戌 34년생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단계이니 심사숙고하라. 46년생 핵심 정곡을 찔러서 처리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58년생 서두른다면 빈틈을 보이고야 말 것이다. 70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나 인연이 박하다. 82년생 모양새만 보아도 충분히 가닥을 잡을 수 있다. 94년생 복을 불러들이는 전조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9, 86

亥 35년생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전연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47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59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71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83년생 필요로 해 왔던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5년생 시기가 중하다. 행운의 숫자 : 02, 58